

월요객석



정양호
고려대 교수(전 조달청장)

소통과 통합의 시대정신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소통 부재의 모습이다. 스승이란 모를지가 적극적으로 제자의 멘토나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선배는 후배에게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나 부당한 청탁은 없어야 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잘못이 발생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만남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과 배치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각 분야가 스마트화되고, 사물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각 부문이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서로 다른 부문 간의 만남이다. 만남이 있어야 소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있어야 통합이 일어난다. 소통과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이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각 부문 간 충분한 만남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전기자동차 제조 측면에서는 차량 부문과 전자장치 부문, 배터리 부문에 경쟁력을 가진 주체들이 만나 협업을 해야 한다. 충전시설 확충은 말할 것도 없고 전기자동차에 알맞은 보험제도와 중고가격 평가시스템도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의 확대와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이다.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

업들 간에 충분한 만남과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자문해보면 현재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것 같다.

최근 남북문제가 급전전되어 전쟁 가능성을 걱정하던 적대적 상황이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공동번영을 꿈꾸는 단계로 발전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높아졌다.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도 바로 소통과 협력의 가속화라고 생각한다. 지난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만남이 사발잔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번영이라는 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찌 남북문제뿐이겠는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주어진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불법과 비리의 사전예방 기능도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 규제를 통해 모든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큰 변화의 방향과 배치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전규제는 잘못된 것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행위규제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어떤 길이 사회의 큰 흐름과 조화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비행기 타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지 않은가? 활주로나 항공관제 시스템을 보완하고 비행기 예방점검과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고 가능성을 줄여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용건이 있는 학생은 노크하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 교수 연구실에 붙은 안내문이다. 보통 학생면담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상담하는데 이젠 연구실 밖에서 상담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투 운동(MeToo)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나서 생긴 풍경이다. 중간고사도 있고 학생들도 나중 시너지 사제지간의 만남을 투명화하지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제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속마음은 은연중에 드러난 것은 아닐까? 미투 운동이 원래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사제지간의 만남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 필자는 씁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다.

얼마 전에는 공무원행동강령이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퇴직공무원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나 여행, 사형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과의 접촉이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간 유관기관 취업이 이미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사적인 만남까지 사전에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社 說

문제인 정부 1년 ‘에너지정책 잘했다’하기엔 부족하다

문제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1년간의 성적표를 매기느라 분주하다. 1년간의 성적표는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 평가가 대부분이며, 일부 미흡한 것이 있다면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얻기가 힘든 현실을 감안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야당의 평가는 다소 야박하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1년 동안의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은 모두 엇박자였다”고 평가했다. 엇박자의 이유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인 것, 환경정책 강화차원에서 CO2와 미세먼지를 저감시켰다며 청정에너지원 원전을 줄이면서 한편으로 원전 수출을 추진한 것은 대표적인 엇박자 정책으로 꼽았다.

직도 원전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에선 다양한 한변수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후석탄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미세먼지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절반 가까운 원전이 멈춰서자 전력공급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신재생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신재생 입지에서부터 계통연결 또 전력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일시적으로 터져 나왔다. 특히 비용에 대한 문제는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원전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환경에 무게를 둔 전력공급 정책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데,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환경 에너지 분야로 좁혀 보면 그리 좋은 점수는 받지 힘들어 보인다.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점을 5점 만점에 3.1점으로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60점 정도다. 간신히 과락을 면한 것인데,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의 따끔한 경고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점수는 이전 정부 말인 2016년의 1.48점에 비해서는 2배 높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정권 말기의 정책과 새 정권 초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환경 에너지 분야로 좁혀 보면 그리 좋은 점수는 받지 힘들어 보인다.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점을 5점 만점에 3.1점으로 매겼다. 100점 만점으로 치면 60점 정도다. 간신히 과락을 면한 것인데,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의 따끔한 경고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점수는 이전 정부 말인 2016년의 1.48점에 비해서는 2배 높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정권 말기의 정책과 새 정권 초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지난 1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신인적 구호’가 정책을 덮었다. 탈원전으로 시작돼 ‘에너지전환’까지 선거공약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에너지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전환과 신재생 3020 정책으로 혼란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아직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

이전 정부 말인 2016년의 1.48점에 비해서는 2배 높다고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정권 말기의 정책과 새 정권 초기의 정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지난 1년 동안의 에너지정책을 되돌아보면 ‘신인적 구호’가 정책을 덮었다. 탈원전으로 시작돼 ‘에너지전환’까지 선거공약이 정책으로 바로 연결되면서 에너지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에너지전환과 신재생 3020 정책으로 혼란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아직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우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아

경제산책

어린 시절 기자는 참 많은 것들을 갖고 싶었다. 등에 메면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배낭이라거나,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가사를 돕는 로봇, 화성(혹은 달)의 별장,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마법상자 등.

당시에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언젠가는 만들거나 가져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다. 그리고 30여년 후 꿈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들 기술은 대부분 개발이 됐거나 향후 구현 가능한 것들이다.

생각 외로 우리 일상과 가까운 기술도 있다. 바로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주는 마법상자’다. 3D프린팅을 통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현실화하는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에 파고들었다.

일례로 의학과 관련해서 3D프린팅의 혜택을 입는 이들이 상당하다. 임플란트 등의 치기

공이나 인공관절, 보청기, 인공기도 등 맞춤형 제작이 필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데다, 심지어 합몰된 두개골이나 턱뼈 등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해 적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에는 생체 조직이나 인공장기 등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3D프린팅으로 구현하고, 발전 효율을 크게 높이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라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내 3D프린팅 업계는 그 가능성은 인정받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3D프린팅 기술을 최근 발전소 부품 제작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와 발전사, 관련 업계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아직은’이란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지 못해, 발전산업에 대한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GE, 지멘스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을 필두로 이미 해외에서는 발전소 핵심 부품을

고 있지만, 막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은 미미한 상황이었다. 업계를 먹여살릴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절실했지만, 딱히 ‘이거다’ 싶은 분야는 없었다. 그렇게 고민하던 3D프린팅 업계에 이제 간절히 바라던 발전기자재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됐다.

분명, 3D프린팅 업계의 간절한 꿈은 곧 현실이 될 것이다.

김병일 기자 kube@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JeonGeeSinmun (전기신문), including websit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AP Coupling (AP 커플링) featuring product image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aesung Industry (대승공업(주)).